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

김서인¹, 박민경^{2*}

¹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Class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Post COVID-19 Age

Seo-In Kim¹, Min-Kyoung Park^{2*}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unsan College of Nursing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Ulsa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학기 동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모두 경험한 1-4학년 재학생 10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6개의 범주, 13개의 주제모음, 2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 '간호 실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 '수업 시스템의 안정화', '상황에 대한 수용과 적응', '예비간호사로서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짐', '비대면 수업의 개선 방향을 찾음'이었다. COVID-19 발발 이후 만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에 대한 이해는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COVID-19, 경험, 교육, 간호대학생,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essence of class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VID 19 ag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0 enrolled students from freshman to senior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face-to-face and contactless classes during four semester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December 9 to December 30, 2021.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Colaizzi metho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25 themes, 13 collections of the themes, and six categories were drawn. The six categories were as follows: vagueness of the future, Lack of confidence in nursing practice, Class system stabilization, Acceptance and adaptation of situations, Have a sense of vocational calling as a pre-registration nurses, Finding the direction to improvement of contactless classes. The nurs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class experience at present two year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seek future educational direction strategy and enhance future education quality.

Key Words : COVID-19, Experience, Education,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Ulsan College fund.

*Corresponding Author : Min-Kyoung Park(mkpark5@uc.ac.kr)

Received April 13, 2022

Accepted August 20, 2022

Revised August 2, 2022

Published August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Coronavirus disease-19(COVID-19)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감염병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대학의 교육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의 학사운영 권고안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기도 하고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1] 갑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은 교수자에게 학생 학습이해도 파악의 어려움,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의 적응문제 등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는 학생들의 불만과 등록금 반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2]. 교육부에 따르면 COVID-19 이후 만 2년이 지난 2022년 1학기, 40% 이상의 대학에서 혼합 수업 혹은 비대면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3] 아직까지 완전한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의 간호교육은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4] 이를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키워내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COVID-19의 혼동된 환경 속에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대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의사소통기술, 리더십, 윤리의식 등을 배워나가야 했다. 그러나 간호대학의 비대면 수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의 수행 및 적용에 대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5]. 비대면 수업의 일부가 과제로 대체되면서 학생들은 증가된 학업량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었고[6], 임상실습 교과목에서는 실습기관이 안전을 이유로 실습 현장을 제공할 수 없어[7] 교내실습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좌절과 아쉬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8]. 대면 수업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발열 모니터링 등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수업에 참여했다. 이러한 COVID-19 상황의 여러 가지 수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대학들은 다양한 콘텐츠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9].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그간 대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수업 경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해제하고 5월 1일부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대학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으며[3], 이에 따라 추후 대면 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COVID-19 확진자의 증가추이가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전면 대면수업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간 COVID-19 이후 수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간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수업은 더 이상 COVID-19로 인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미래의 교육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어[10] 이에 대해 적절한 교육전략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COVID-19 발생 이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인지[11], 수업만족도[12], 학업소진[13]에 관한 양적 연구, 비대면 수업의 내용분석[14], COVID-19 확산 경험[15, 16], 실습수업 대체[8, 17]에 관한 질적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COVID-19 초기 전면 비대면 수업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외 2020년 2학기 간호대학생의 혼합수업 경험[9]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연구대상은 2학년에 국한되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의 연구방법은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18] 생생한 경험을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15]. 간호대학생들의 수업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보다 전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연구자가 정련된 언어로 주제 및 범주를 기술하기 보다는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빌어 그 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의미구조를 확인하는데 Colaizzi의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 만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그간 수업 경험을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심층분석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미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수업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기 위해 Colaizzi [19]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U시와 K시에 소재하는 간호대학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학기 동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모두 경험한 1-4학년 재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3명이었으며,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른 대상자 수의 근거로는 선행연구[9, 20]를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각 8명이었으며, 연구 중 대상자 스스로 참여를 포기하거나 중단을 원하는 경우의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 10명을 선정하였다.

2.3 자료수집 방법

자료는 2021년 12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참여자가 편안하게 여기는 시간에 참여자들이 선택한 휴게실이나 인근 카페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2차 면담 및 전자자료 되읽기의 경우 유선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면담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면담에서 사용한 주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루어진 대면, 비대면 수업의 경험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로 참여자들이 수업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적 질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업을 하면서 힘든 점이나 좋았던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이 귀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COVID-19 상황과 같은 사회적 위기 시 수업의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등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3, 4학년의 참여자들에게는 '포스트 코로나 상

황에서 진행된 임상실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임상실습이 귀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면담 시에 연구자는 참여자의 진술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참여자의 억양 변화나 얼굴표정 등 비언어적 반응들도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를 위해 U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044363-A-2021-005)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공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전, 면담내용을 연구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비밀보장에 대한 사항을 약속하고 참여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면담 중 녹음된 파일 등이 폐기될 것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참여동의서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녹음 후 면담 당일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를 필사하여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입력하고 잠금 설정하였으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자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코드화하였다. 면담 종료 후에는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Colaizzi[19]의 현상학적 자료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먼저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필사하고 전체 자료를 검토하였다.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의미있고 중요한 진술을 추출하고 추출된 진술문의 의미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재진술 한 뒤 재진술에서 의미를 구성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s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체 대상자의 공통된 경험을 통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에 대해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기술하였다.

2.6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들은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고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SCI급 학회지에 게재한 경험이 있다. 여러 학회 참여로 질적 연구에 대해 탐구하고 있으

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2.7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ln[21]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질적 연구 기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면담 시 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을 모두 기술하면서 경청하였고 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진솔한 내용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받음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적용 가능성을 위해 연구주제에 대하여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시도하였고,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

러 차례 연구자 간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1인에게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중립성을 위해 모든 질문을 개방형으로 진행하였으며 ‘판단중지’와 ‘괄호치기’ 상태를 유지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은 6개의 범주, 13개의 주제모음, 25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 ‘간호 실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 ‘수업 시스템의 안정화’, ‘상황에 대한 수용과 적응’, ‘예비간호사로서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짐’, ‘비대면 수업의 개선 방향을 찾음’이었다(Table 1 참고).

Table 1. Class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Post COVID-19 Age

Category	Theme clusters	Theme
Vagueness of the future	Helplessness disturbing growth	Wasting time due to lack of self-control
		Feeling fall behind it myself in comparison with friends
	Anxiety on expanded studies	Stress due to heavy loads of tasks and studies
		Stress due to status of passing national exams
Lack of confidence in nursing practice	Fear of clinical adaptation	Feeling shortage in learning ability to cope with field depending on situations
		Regret on not face-to-face contacting with patients
	Non-assurance of in-school practice substitute effects	In-school practice not reflecting clinical sites
		Feels like a simple 'wasting time' the in-school practice
Class system stabilization	Supplemented LMS system	LMS system becoming convenient to use
		LMS system with high usability for face-to-face classes
	Class content quality improvement	Improvement in picture and sound quality of video lectures
		Consolidation of professor's lecturing competence
Acceptance and adaptation of situations	Understanding unavoidable social situations	Adapt to the ever-changing class operation methods
		Feeling thanks for performing partial face-to-face classes
	Changes in positive attitudes toward contactless classes	Finding oneself gradually concentrating on contactless classes
		Finding a suitable learning method
	Forming a support system with fellow learner	
		Finding the communication medium with professors
Have a sense of vocational calling as a pre-registration nurses	Feeling the responsibility of execution of epidemics prevention regulations	Take inconveniences and comply with epidemics prevention guidelines at the school
		Minimize social activities
	Trust in fellow learner	Classrooms feel safe from infectious diseases
Finding the direction to improvement of contactless classes	Need of learning control	Laziness coexisting within autonomy
		Partial face-to-face classes are necessary to some degree
		Cyclical evaluation of students' learning situation is needed
	Need for encouraging fun and motivation	A new teaching method that can gain attention from students is required

3.1 범주 1. 미래에 대한 막연함

3.1.1 성장을 가로막는 무력감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수행이 어려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서 자기관리가 안되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도태된다고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 알람을 맞춰놔도 또 자고... 또 자괴감에 빠지고...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했나... 하루가 그냥 또 무기력하게 가버려요. 앞으로 어찌지... 제속 걱정만 하고...(참여자 10)

비대면인데 저 친구는 어떻게 자기관리를 잘할까... 하루하루 돌아보면 발전이 없어요. 이래서 국시는 합격할 수 있을까.. 이제와서 회복할 수 있을까...(참여자 4)

시간표대로 수업 들어야지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00이는 좋은 병원 취업 할 텐데 생각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런 생각하면 더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2)

3.1.2 증폭되는 학업에 대한 불안감

참여자들은 대면, 비대면 수업에서 함께 부여되는 많은 과제와 학업량에 부담을 가지며, 국가고시 합격 여부에 대해서도 점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하면 거의 매주 모든 과목에서 대체 과제가 있는데 대면 수업에서도 같이 과제를 주시니까... 성적도 잡아야 되고 국시 준비까지... 국시 합격은 할 수 있을지 점점 불안해지고...(참여자 2)

공부할 범위는 왜 이렇게 많은지... 코로나 이후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당장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심적으로 부담이 크니까...(참여자 3)

솔직히 공부하는 것도 빠듯한데 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 같고... 성적이 좋아야 나중에 취업도 잘 되는데... 저희과는 특히 성적에 더 예민하잖아요.(참여자 7)

3.2 범주 2. 간호 실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

3.2.1 임상 적응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COVID-19로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한 경험이 적고, 대상자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배움에 부족함을 느끼며 차후 임상 간호사로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보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고... 꼭 경험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임상에서 잘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까칠한 환자분들 때문에 병원 그만두는 선배들도 많던데...(참여자 3)

몇 달 뒤면 당장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실습도 못해보고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이 불안하고...(참여자 5)

현장실습을 많이 못해서 두렵기까지... 저희가 취업할 때 신규간호사들이 모두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환자들도 걱정되고...(참여자 1)

3.2.2 교내실습 대체 효과에 대한 불확신

참여자들은 실제적인 실습이 진행되지 않으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현장실습을 대체하여 진행된 교내실습이 임상현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널싱스킬은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과 비슷하고 직접 환자를 만난 것은 아니니까... 학교에서 시키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솔직히 병원에서 자신 없어요. 실제적인 실습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4)

그냥 시간만 때웠다는 느낌... 현장을 나가야 실제 사례가 있고... V-sim은 친구들 과제 돌려보고 영어로 되어있는 것은 컴퓨터에서 번역도 쉽게 되니까 실속이 하나도 없는 느낌...(참여자 5)

솔직히 졸업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느낌... 이러다가 제가 병원에서 큰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불안하고...(참여자 2)

3.3 범주 3. 수업 시스템의 안정화

3.3.1 개선된 LMS 시스템

참여자들은 초기 불안정했던 LMS 시스템이 점차 개선되어 사용의 불편감이 사라지고, 비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안정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초기에 IMS에서 분명히 수업을 들었는데 결석처리가 되고...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IMS 퀴즈는 대면 수업에서도 매번 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참여자 7)

요즘은 실시간 원격 수업이나 과제, 퀴즈 모두 LMS에서 다 해결되니까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참여자 2)

대면 수업에서도 강의자료 업로드나 전체 공지사항 등을 IMS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하기도 좋아요. 어플로 연결되어서 알림도 뜨니까...(참여자 9)

3.3.2 수업 콘텐츠 질 향상

참여자들은 COVID-19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업 운영의 미흡함을 느꼈으나 점차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미흡했던 점이 보완되면서 강의의 질이 향상되고 수업의 체계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동영상 재생도 제대로 안됐고... 잠음도... 학생회에 수업이 제대로 안된다고 계속 건의했어요. 2021년은 이제 비대면 수업의 도입을 제대로 했다는 느낌...(참여자 5)

처음 비대면 수업을 시작할 때는 교수님들께서도 너무 온라인 강의 경험이 없으시구나... 그냥 책 읽는 느낌... 지금은 온라인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은 대면 수업 하실 때 보완해 주시더라고요.(참여자 9)

이제는 수업 운영방식이 갑자기 바뀌더라도 교수님들께서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으시고... 전에는 갑자기 비대면 수업하면 강의도 한참 늦게 올라오고... (참여자 6)

작년에는 온라인 강의시간 자체도 되게 짧았거든요. 올해는 적절한 분량을 녹화해주시고... 보충 설명들도 더 추가된 느낌...(참여자 3)

3.4 범주 4. 상황에 대한 수용과 적응

3.4.1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함

참여자들은 COVID-19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학교의 수업 운영방식에 순응하고 일부라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수업 방식이 계속 대면, 비대면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이리 갈피를 못 잡고 혼동을 주나 학교에 짜증이 나

도 했는데 이전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제가 맞춰서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0)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라도 대면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작년엔 비하면 지금은 공부하기 훨씬 수월하죠. 비대면이 이제 익숙해지기도 했고...(참여자 6)

이제 비대면 수업이 적응되니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그런데 기본간호학실습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어떻게든 대면수업 해주시려고... 정말 감사했어요. (참여자 8)

처음에는 등록금도 다 내는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병원은 학교에서 실습 나오는 다양한 학생들 때문에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참여자 2)

3.4.2 비대면 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화

참여자들은 경험이 쌓이면서 비대면 수업에 점점 적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COVID-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수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적응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도 집중이 잘 됐어요. 이런 감염 상황이 아니어도 이론 수업이나 교양 수업은 온라인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수님과 저희가 보강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때요...(참여자 5)

올해는 많이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성적도 오르고...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을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유지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3)

3.4.3 수업 방식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음

참여자들은 상황을 받아들이며 점차 대면, 비대면 각 수업 방식에서의 이점을 활용하고 동료 학습자와의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학습하면서 교수자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적합한 학습방법을 발견하여 적응하고 있었다.

비대면 강의는 처음에 등록금이 아깝단 생각이 들기도... 그런데 우리 학교만 그런게 아니니까요. 계속 돌려볼 수 있고 원하는 시간대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오늘까지 들어야 된다

고 이야기 해주기도 하고...(참여자 10)

비대면 하면서 잘 이해 안됐던 부분은 대면 수업할 때 교수님께 따로 질문하기도 하고 특히 동기들과 쉬는 시간에 많이 이야기 했어요. 비대면 기간에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하니까 공감대도 형성되고...(참여자 5)

비대면 수업에서는 교수님께 단톡방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요청 드렸어요.(참여자 3)

대면 수업 기간에도 의문이 생기면 LMS 쪽지를 활용했어요. 교수님들께 직접 질문 드리기 어려울 때 그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참여자 8)

3.5 범주 5. 예비간호사로서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짐

3.5.1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책임감

참여자들은 간호대학생으로서 주변에 건강상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불편감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으로서도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건물 출입할 때마다 정말 귀찮은데 매번 QR찍고 마스크도 점심 먹을 때 아니면 절대 안 벗고...(참여자 9)

제가 잘못해서 환자들에게 코로나라도 옮기게 되면 실습생으로서의 연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염 예방 수칙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집 밖으로 절대 안 나왔어요.(참여자 1)

밖에 나가서 놀다가 혹시 코로나 걸리면 간호학과 학생이 방역수칙 잘 안 지켜서 코로나 걸렸다는 이야기 들을까봐 더 조심하게 되고...(참여자 8)

3.5.2 동료에 대한 믿음

참여자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친구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으며 강의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간호학과 학생이니까 당연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두렵지 않았어요.(참여자 5)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끼리 서로 강의실 환기하고 이야기하고... 에브리타임에서 보면 학교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학교에서 책임질꺼냐는 말도 있던데 우

리는 간호학과라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걱정 안 됐어요.(참여자 9)

3.6 범주 6. 비대면 수업의 개선 방향을 찾음

3.6.1 학습 통제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의 자율성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공존하는 게으름을 인식하고 비대면 수업만 진행하기보다는 대면 수업을 일정 부분 혼합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같이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응되긴 했지만 아직 비대면 수업은 몰아서 듣는 경향이 있고... 너무 자율성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자주 평가를 하면 스트레스는 크겠지만 이렇게 아는 것이 없나 각성하고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참여자 6)

비대면 수업만하면 어쩔 수 없이 게을러지는 것이 있는데 격주로 대면 수업할 때는 그 전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 버리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스케줄에 맞춰서 잘 듣게 되더라고요.(참여자 3)

3.6.2 흥미, 동기유발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일률적인 강의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고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동영상에 교수님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 좀 지루한 것 같아요. 화면의 끝이라도 교수님 사진을 올리는 등 좀 더 시선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참여자 6)

수업에서 핸드폰으로 카훗 어플로 퀴즈를 풀었는데 소리가 재미있게 나서 시간도 금방 갔고... 비대면 수업에서도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 대면 수업할 때는 비대면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몰아서 퀴즈로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이해했는지 파악도 되고 애들이 다 재미있다고 좋아하고...(참여자 7)

4. 논의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은 6개의 범주, 13개의 주제모음, 25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미래에 대한 막연함'은 '성장을 가로막는 무력감', '증폭되는 학업에 대한 불안감'의 주제모음을 포함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이 도태된다고 생각하여 무력감을 느끼며, 많은 과제와 학습량으로 학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미래에 대해 막연해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COVID-19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회적 상황에서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며[14], 비대면 수업을 받은 학생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대면 수업 받은 학생보다 학습성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인식하여 불안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22]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비대면 수업은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의 자기주도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12]와 같이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어려운 참여자들은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은 학생의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와 간호 실무역량 향상이라는 교육목표와의 상충으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혼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업의 효과성을 위해 수업의 일부를 과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6] 여러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제 및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COVID-19 이후 대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부담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었던 문제점[9]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학 전공 수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관리 강화프로그램의 적용이나 수업 일부를 대체하는 목적이 아닌 학습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범주는 '간호 실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임상 적응에 대한 두려움', '교내실습 대체 효과에 대한 불확신'의 주제모음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임상 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면서 부족한 현장 경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임상 실습을 대체하여 시행하는 교내실습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미래 간호사로서 임상 적응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는 학생들의 임상 실습이 중단될 때, 그것이 경험 부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Martin 등 [2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임상 실습 경험은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인 요소로써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의료팀에 통합하여 직업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24]. 실습 교과목이 현장에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현장과 유사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25] 치료적 상호작용, 임상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식과 술기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교내실습으로 인해 부족했던 현장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별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범주인 '수업 시스템의 안정화'는 '개선된 LMS 시스템', '수업 콘텐츠 질 향상'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 초기, 동영상 재생이나 출결확인이 잘 안되는 등 불안정했던 수업 시스템이 개선되고 교수자의 비대면 수업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어 이제는 안정된 수업 체계가 도입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교수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11]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선행연구가 2020년 1학기 COVID-19 초기에 수행된 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대면 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수자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적응으로 콘텐츠의 화질, 음량을 비롯한 강의의 질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LMS 시스템의 경우 이제는 대면 수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대학 교육 역량 및 인프라는 미래 교육 방향의 전환 및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기제가 되도록 대학별로 또 다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범주는 '상황에 대한 수용과 적응'으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함', '비대면 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화', '수업 방식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음'의 주제모음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COVID-19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수업 운영방식이나 임상 실습 중단 상황을 받아들이고 각 수업 방식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아내어 적용하고 있었다. 다시 보기가 가능한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활용하고 동료들과 수업 시 쉬는 시간 또는 모바일 SNS 단체 대화

방을 이용해 난이도가 있는 학습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결코 전통적인 교육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전 주장 [26]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에서 비 효과성의 요인으로 흔하게 거론되는 교수자와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 [9, 26]을 교수자에게 요청을 통해 극복하거나 LMS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며 적응한 참여자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촉진요인으로 적응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동료들과의 커뮤니티와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2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소속감 및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적응력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범주인 '예비간호사로서 직업적 소명을 가짐'은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책임감', '동료에 대한 믿음'의 주제모음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예비간호사 신분인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며 사회의 공공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가지고 방역수칙을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의 방역수칙 이행을 당연시 여기며 강의실에서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COVID-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예방수칙의 대부분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고한 양정하와 이운주 [16]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예방적 건강 행위가 일반 대중의 감염 예방행위 수행도에 비해 높게 파악되었다는 박성희 외 [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맥락이며, 이는 사회적 감염병 상황과는 별개로 간호학과 교육에서 감염관리가 강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진로 선택에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28] 참여자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 및 규범이나 가치를 이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여섯 번째 범주는 '비대면 수업의 개선 방향을 찾음'으로 '학습 통제 의 필요성', '흥미, 동기유발의 필요성'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수업의 필수적인 성공 요인으로 학생의 수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과 지식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와 같이 [29]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비대면 수업의 자율성 안에서 계층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기적인

학습 평가나 대면, 비대면 수업의 혼합 방식을 제시하였다. 비대면 수업에서 평가 및 피드백은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때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30] 단순한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면, 비대면 수업의 교차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동기부여는 학습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되며, 수업의 게임화는 특히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31] 게임 기반 학습과 같은 다양한 흥미 유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개선점들을 반영한다면 감염병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의 새로운 전략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은 6개의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함', '간호 실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 '수업 시스템의 안정화', '상황에 대한 수용과 적응', '예비간호사로서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짐', '비대면 수업의 개선 방향을 찾음'이었다.

비대면 수업 병행 시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량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막연함'의 대안으로 자기관리 강화프로그램의 적용과 학습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과제 제시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여된 간호 실무에 대한 자신감 증대를 위해서는 치료적 상호작용, 임상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식과 술기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 추가 교육과정 적용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나름대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수용하고 적응하고 있으며, 대학차원의 LMS 활용 및 수업 컨텐츠의 개선을 통해 수업 시스템이 안정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대학 교육 역량 및 인프라는 미래교육의 전환점에서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육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면수업의 병행, 주기적 형성평가 피드백, 흥미 및 동기강화를 통해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COVID-19 발발 이후 만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수업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육과정 상 수업 경험이 다른 각 학년의 참여자 수가 적어 학년 별 수업 경험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간호대학생들의 학년별 참여자를 확대하여 감염병 상황에서의 수업 경험을 비교해보고 학년별 교육전략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W. Do. (2020). An Investigation of Design Constraint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Face-to-face course into Online Course.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6(2), 153-173. DOI : 10.24159/JOEC.2020.26.2.153
- [2] J. H. Oh. (2020). After COVID-19, Looking Back on Education. *Monthly Public Policy*, 178, 22-25.
- [3] Ministry of Education. (2022). *Post-Omicron Day-to-Day Recovery Plan in the School*.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4c54c85dc977f3136206e8e5efb5110b&rs=/upload/synap/202207/>
- [4] K. O. Park & J. K. Kim. (2020).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Experience with Professor.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6(3), 205-271. DOI : 10.11111/jkana.2020.26.3.205
- [5] M. W. Kim, M. J. Kim, Y. I. Oh & S. Y. Jung. (2020). The Effect of Online Substitution Class Caused by Coronavirus(COVID-19) on the Learning Motivation, Instructor-Learner Interaction, and Class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519-541. DOI : 10.22251/jlcci.2020.20.17.519
- [6] D. J. Lee & M. S. Kim. (202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59-377. DOI : 10.15702/mall.2020.23.3.359
- [7] K. S. Bang et al. (2021).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Clinical Competency and Job Readin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r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7(4), 402-411. DOI : 10.5977/jkasne.2021.27.4.402
- [8] S. Y. You & M. Y. Cho. (2021).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Online Adult Nursing Practicum In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0), 385-398. DOI : 10.22251/jlcci.2021.21.10.385
- [9] M. H. Seo. (2021). The Experience of Mixed Lectur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3), 129-137. DOI : 10.5762/KAIS.2021.22.3.129
- [10] K. O. Park, S. H. Moon & J. Y. Oh. (2022).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in Distance Learning for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108, 105162. DOI : 10.1016/j.nedt.2021.105162
- [11] M. K. Cho & M. Y. Kim. (2020). Influencing Factors on Meta-cognition of College Students in Nursing after Distance Learning. *Crisisonomy*, 16(8), 73-83. DOI : 10.14251/crisisonomy.2020.16.8.73
- [12] J. H. Sung. (2020). Satisfaction and Current Status of Untact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of Nursing under COVID-19.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13, 42-48.
- [13] E. I. J. Lee. (2021). Affecting factors the Academic Burnout in Nursing Students of Non-face-to-face Class in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1011-1030. DOI : 10.22251/jlcci.2021.21.4.1011
- [14] S. N. Kim. (2020). The Contents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bout On-line Lectu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477-491. DOI : 10.22251/jlcci.2020.20.17.477
- [15] C. G. Lee & J. H. Ahn. (2020).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42-152. DOI : 10.5762/KAIS.2020.21.12.142
- [16] J. H. Yang & Y. J. Lee. (2020). Pandemic Experience of Infectious Diseases of Nursing Students: Targeting non-confirmed COVID-19.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8(6), 85-98. DOI : 10.22678/JIC.2020.18.6.085
- [17] H. S. Kim, E. M. Kim & D. S. Lee. (2021).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Education in School Practice: Focused o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169-178. DOI : 10.5762/KAIS.2021.22.2.169
- [18] B. H. Kim et al. (1999). A Comparison of

-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DOI : 10.4040/jkan.1999.29.6.1208
- [19] P.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20] S. J. Lee & H. Y. Kim. (2016). Rie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Patient Car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Phenomen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2), 172-183. DOI : 10.7739/jkafn.2016.23.2.172
- [21] Y. Lincoln & E.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rochure]. Beverly Hills: Sage.
- [22] P. Nicklen, J. L. Keating, S. Paynter, M. M. Storr & S. Maloney. (2016). Remote-Online Case-based Learning: a Comparison of Remote-Online and Face-to-Face, Case-Based Learning—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ducation for Health*, 29(3), 195-202. DOI : 10.4103/1357-6283.204213
- [23] L. Martin-Delgado et al. (2021). Nursing Students on the Frontline: Impact and Personal and Professional Gains of Joining the Health Care Workfor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pai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7(3), 588-597. DOI : 10.1016/j.profnurs.2021.02.008
- [24] K. Diaz, B. A. Staffileno & R. Hamilton. (2021). Nursing Student Experiences in Turmoil: A Year of the Pandemic and Social Strife Dring Final Clinical Rotation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7(5), 978-984. DOI : 10.1016/j.profnurs.2021.07.019
- [25] G. Rossetini et al. (2021). Digital Entry-Level Education in Physiotherapy: a Commentary to Inform Post-COVID-19 Future Directions. *Medical Science Educator*, 31(6), 2071-2083. DOI : 10.1007/s40670-021-01439-z
- [26] L. Illarionova, N. Karzhanova, A. Ishmuradova, S. Nazarenko, A. Korzhuev & E. Ryazanova. (2021). Student Attitude to Distance Education: Pros and Cons. *Cypriot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16(3), 1319-1327. DOI : 10.18844/cjes.v16i3.5857
- [27] S. H. Park, E. K. Byun & Y. S. Seo. (2021). Knowledg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Coronavirus Disease 19(COVID-19)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2), 281-289. DOI : 10.17703/JCCT.2021.7.2.281
- [28] Y. S. Seo & C. Y. Jeong. (2020).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e Image and Self-esteem on Career Conges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linical Health Research*, 8(1), 1377-1385.
- [29] K. M. Skoropad. (2021). Opportunities of Distance Learning at the Medical University. *Art of Medicine*, 3(19), 135-138. DOI : 10.21802/artm.2021.3.19.135
- [30] K. Lister, J. Seale & C. Douce. (2021). Mental Health in Distance Learning: a Taxonomy of Barriers and Enablers to Student Mental Wellbeing. *Open Learning: The Journal of Open, Distance and e-Learning*, 1-15. DOI : 10.1080/02680513.2021.1899907
- [31] D. Y. Chong. (2019). Benefits and Challenges with Gamified Multi-media Physiotherapy Case Studies: a Mixed Method Study. *Archives of Physiotherapy*, 9(7), 1-11. DOI : 10.1186/s40945-019-0059-2

김 서 인(Seo-In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9월~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근거기반간호, 감정노동, 무례함, 괴롭힘
- E-Mail : kimseoin@kcn.ac.kr

박 민 경(Min-Kyoung Park)

[정회원]



- 2013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4월~2020년 8월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9월~현재 :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임상 의사결정, 비판적사고, 간호창업
- E-Mail : mkpark5@uc.ac.kr